

‘고무줄’ 청년 나이

전남도·시·군마다 다른 기준에 지원도 달라 ... 개선책 마련 시급

A씨(39)는 청년이면서 청년이 아니다. 그는 고흥에서는 고령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19~49세) 요건에 맞는 청년이다. 전남도가 49살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부부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대상(19~34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인당 연간 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전남도의 청년 문화복지비 대상(21~28세)도 아니다.

전남도, 시·군 등 자치단체마다 제멋대로인 청년 기준에 대한 통일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 5개 분야 82개 사업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3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법, 규정, 자치단체마다 뒤죽박죽인 청년의 나이 기준을 맞추는 등 혼선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청년기본법과 달리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하는 청년 정책과 조례가 규정하는 청년의 연령대가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혼선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당장,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인 조례 기준도 다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청년 조례의 경우 전남도,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장성에서는 청년 연령을 18~19세~39세로 규정하고

애매한 청년 나이 기준

시작 18~21세, 끝 28~49세
결혼 축하금 49세까지
문화복지 지원비 21~28세
월세 지원 대상은 19~34세

있다. 하지만 영광·무안은 18·19세~45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군은 18·19세~49세까지를 청년에 포함하고 있다.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는 것과도 맞지 않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연령은 15~29세다.

정책별 지원 대상도 다르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49세까지 받을 수 있지만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 간 적립하면 전남도가 매칭 지원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39세까지

만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19~34세만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20만원씩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복지비는 21~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의회의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최근 김호진(더민주·나주 1) 의원 주도로 전남도와 함께 ‘전남 청년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어 청년 기본 조례의 문제점, 청년정책 지원 대상(연령) 일원화, 청년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장은 “출산·육아 등 진입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 생애 역할 기능에 맞는 연령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연령을 재조정해 폭 넓은 청년층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전남도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잡고, 참신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타지역 보다 청년 정책이 있어 우위를 선점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청년(18~39세) 인구는 39만1309명으로 전남 인구(181만7697명)의 21.5%를 차지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울긋불긋 꽃대궐 ... 남도는 지금 봄 축제



9일 화창한 날씨에 활짝 핀 형형색색 꽃들이 남도의 봄을 알리고 있다. 10일 개막하는 ‘22회 광양매화축제’에 앞서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을 찾은 상춘객들이 매화 사진을 찍고 있다.(위) 11일부터 ‘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리는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마을에도 관광객들이 찾아 산수유 꽃 사이를 거닐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구례산수유축제는 19일까지 열린다.

/광양·구례=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호주에 충격패... 오늘 ‘운명의 한일전’



호주전에서 ‘충격의 패배’를 기록한 한국 야구대표팀이 ‘운명의 한일전’을 치른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10일 오후 7시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선다. 상대는 역대 최강 멤버를 앞세운 ‘야구 강국’ 일본이다.

<관련 기사 18면>

한일전 자체로도 눈길에 쏠리는 경기지만 한국의 ‘3승 1패’ 조별리그 계산이 틀어지면 긴장감 가

김광현-다루빗슈 유 선발 대결

특한 ‘운명의 승부’가 될 전망이다.

김광현이 선발로 나서 메이저리그에서 85승을 거둔 다루빗슈 유와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한국은 9일 치러진 호주와의 1차전에서 양의지의 역전 스리런에도 불구하고 7-8, 재역전패를 당했다.

결과도 결과지만 패배로 가는 과정이 좋지 않았다. 김원중과 양현종이 연달아 3점포를 허용하면서

광주비엔날레, 홍보인가 소시지 광고인가 ▶2면

광주·전남 수도요금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6면

복스-조선의 걸 크러시·나무의 어두움...▶14·15면

고개를 숙였고, 4-5로 뒤진 7회말 대타로 나온 강백호는 좌중간 담장을 때리는 2루타를 기록했지만 세리머니를 하다가 태그 아웃 되면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는 토미 현수 에드먼이 선두 타자로 나와 좌전안타로 출루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발이 묶였다. 이어 2사에서 스타트를 끊은 에드먼이 아웃되면서 패배로 경기가 끝났다.

호주전 승리가 불발되면서 부담 많은 한일전이 예상된다.

‘한일전’ 마운드를 여는 김광현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투타 겸업을 하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지난해 일본 프로야구에서 56개의 홈런을 날린 무라카미 무네타카,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5년 9000만 달러 계약을 한 요시다 마사타카 등을 앞세워 우승 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적지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한국인 입장에서는 상대의 응원전도 부담스럽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중교통서 마스크 의무 착용 곧 해제할 듯

정부가 현재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월 30일)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며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원회에 최근의 방역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을지 의견을 구했다.

감염병자문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고, 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문위의 의견과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5일 예정된 중대본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시행 시기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 조합장 당선자 200명 얼굴 ▶2·12·13면

바이탈뷰티

명작수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